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가족 간에 대화하자

왜 사막이 되는가? 물이 없어서다. 왜 가족이 사막화되고 있을까? 대화가 없어서다. 무언가족(無言家族), 대화가 없는 현대 가족을 일컫는 신종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말은 섞지 않는 요즘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 그러다 보니 사막이 메말라가듯, 가족들의 가슴이 점점 메말라 간다. 사막에 모래바람만 불어대듯 가족끼리 깔끄럽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기쁨도 아픔도 나누며 살아간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여 더욱 굳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를 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화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내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즉 경청(傾聽)이 대화의 기본이다. 우리가 그걸 못한다. 아이가 뭐 하나 얘기하려고 하면 엄마가 말을 가로채서 열 마디 훈계로 끝낸다. 아내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다 듣기도 전에 말을 딱 자르고 남편이 '네가 뭘 아냐?'는 식이니 아예 입을 다물 수밖에. 저수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물을 다 퍼내야 하는데...

한 집에서 함께 산다고,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행복은 가족 모두가 힘을 합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화는 행복을 만드는 기본 재료요,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요, 문제 해결사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하니 어찌 되겠나. 각자도생이고, 가정이 맛이 없고, 가정에 문제가 수북이 쌓이는 것이다. 제발 가족끼리 대화하라. 대화의 부재는 관계의 단절을 낳으니까.

5월, 가정의 달이다. 말 한마디 없는 외식 말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가족끼리 대화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가족이 얘기하길랑 끝까지 다 들어줘라. 똑 잘라 끼어들지 말고, 앞서지 말고. 제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라.

분노는 마귀의 속성이다, 속지 말라!

“기도원 집회에 가면 난 성도들을 밤새도록 기도시킬 것입니다. 기도를 밤새 한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춘계산상집회에 앞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강력하게 기도 훈련시키겠다고 선포하셨다. 역시나 집회 첫날 첫 시간, 목사님은 예배 전 1시간 기도에 더하여 예배 중에도 두 번이나 불을 끄며 강력하게 기도훈련을 시켰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지 훈련장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시키고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 발의 자갈을 골라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는 원래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계12:7~12). 그런데 하나

같다. 공들여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감정조절을 못하는 자들의 삶은 사막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고 반복해서 조언한다. 분노는 잔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잠27:4),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잠15:18),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잠22:24),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잠12:16).

그러나 분시 화가 많은 자들이 변화되어 온유한 자가 된 자들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바울, 총회장 목사님이시다.

“위대한 인물 모세는 화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되고(민12:3),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은 모

세의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잠16:32). ‘육체의 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9~21).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인 분노를 가진 자들입니까, 성령의 은사인 온유함을 가진 자들입니까? 분노가 가득한 자가 될 것인가, 온유한 자가 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처럼 천하에 온유한 자가 우리 교단에서 많이 나오길



2026 춘계산상집회(4월 27일~30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님께 대적하다 하늘에서 쫓겨나서는 크게 분을 내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성냄(忿), 소리지를 노(怒)입니다. 분노를 내는 순간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드러낸 자의 최후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죽인 것입니다(창4:8)."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왕들과 정치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권력을 한순간에 잃고 무너지는 사건들을 많이 봤다. 분노는 불화산 같으며 추수 때 태풍과도

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딤후4:11).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응수하지 않으시고 왼뺨도 내밀라 하셨습니다(마5:39). 천하에 온유한 분이셨지요. 지금 손등과 손바닥을 굽어 보십시오. 어디가 더 시원합니까? 손바닥이 더 시원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면 분노는 사라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시37:11). 만약 제가 화를 버럭버럭 드러내는 자라면 누가 저를 도와 일하겠고, 이 기도원에 오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

바랍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찬송 ‘고요한 바다로’를 성도들과 함께 부르며 성도들의 마음 발이 분노를 버리고 온유한 옥토가 되어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길 간절히 바라셨다.

이렇게 춘계산상집회는 처음부터 기도로 마음의 발을 충분히 갈아엎고, 내 안의 분노를 제거하는 영적 훈련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되어 2026년, 내가 서 있는 땅을 반드시 기름지게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송현혜



아외식당



성전을 내려오는 성도들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전10:10)

우리,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자

“무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이든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은데, 그곳을 지나가려면 웬지 좀 오싹합니다. 빈집이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치상 더 잘 보존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녹슬고 무너지고, 그래서 흉가로 변합니다. 자동차요? 집값 맞먹는 자동차라고 해도 안 쓰면 녹슬어서 망가 집니다. 어쩌다 운행하면 끄적거리고 제 속도를 못 냅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지가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합니다. 왜요? 안 했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차를 몰고 나갔는데,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대형사고를 칠 뻔한 적도 있고, 광화문에서 차선 변경을 못해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안 하면 못하고, 안 쓰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안 쓰면 뼈거덜거리고요, 머리로 쓰지 않으면 안 돌아가고 굳습니다. 기계도, 기술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매일 만나는 사람과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지만요, 매일 만나는 사람과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과는 안부를 묻고 나면 딱히 할 말이 없어 멧쩍은 침묵의 시간이 흐를 뿐입니다. 가족도 어쩌다 만나면 어색하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방언 기도요? 오랫동안 안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귀신 쫓는 거 두말할 필요 없지요. 기도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편생각이 계속 들고, 기도 줄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녹슬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비법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주 쓰는 열쇠는 녹이 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쓰고 난 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온 분은 다 아시죠? 평소 총구를 닦고 기름칠을 잘해놔야 격발이 원활합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슬슬 녹이 슬고, 유사시에 방아쇠를 당겨도 총구가 막혀 발사가 안 됩니다.

연장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보니까 자기 장비를 그렇게 잘 챙깁니다. 일이 끝나면 연장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고, 기름칠해서 잘 관리합니다. 자동차도 됐으면 기름을 채워줘야지요. 그래야 새벽에 급하게 나가더라도 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엔진오일 체크도 해주고, 타이어 점검도 해주는 등, 정비를 잘해줘야지요. 몸도 운동을 했으면 좋은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소로 기름칠을 해줘야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기름칠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녹슬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직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능력을 행하며 교회 부흥을 이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가 커지니까 심방 다니고, 교회 관리하느라 바빠서 기도가 뒷전이 됐습니다. 여러

분, 기름칠을 안 해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기계는 돌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면 결국 녹슬고 고장 나서 멈춰버리고, 때론 화재로 이어져 공장까지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관리를 안 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로 하루를 여시고(막1:35),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막6:46), 철야기도도 하시고(눅6:12), 산기도도 하신 것은 영적 기름칠을 하신 겁니다(마14:23).

혹 당신의 신앙에 녹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면 귀신 쫓던 자가 지금은 병원부터 찾습니까? 녹슨 겁니다. 찬양하던 자가 찬양하지 않는 것, 봉사하던 자가 봉사하기를 싫어하는 것, 영이 녹슨 것이지요. 주일성수가 힘들어지신 분, 말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인생이 고장 나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가끔 수돗물에 녹이 섞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리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수는 1등급수입니다. 이는 수도 파이프라인이 녹슬고 낡아서 그

런 겁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인생에 녹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이프라인이 녹슬어서 그런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낙담, 좌절, 세상적인 말과 생각... 왜 나올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리수가 1등급의 물이라도 파이프라인이 녹슬면 녹물이 나오듯, 생각의 파이프라인이 녹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충만하면 새사람이 되

거든요. 그래야 삶에 건강한 물, 생명이 약동하는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잠24:30~32).

주인이 밭에 잡초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잡초가 나서 밭을 덮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잡초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썩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마13:25~26).

악한 원수, 마귀와 그의 줄개가 범인입니다. 언제 뿌릴까요? 사람이 잘 때입니다. 즉 신경 쓰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원수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충만에 있고, 성령충만은 기도해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라, 무시

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그리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입니다. 왜 가난하고, 병들고, 괴롭고, 우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인생에 녹물만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 인생 밭에는 잡초만 무성한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칠하는 것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충만을 입고, 성령충만을 입어야 녹슬게 하는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충만해야 잡초를 뿌리는 악한 것들을 쫓고 내 밭에 실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며, 못문을 깨뜨리시고 쇠 빔장을 꺾으시며, 위경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 한 마디로 기도하면 ‘만사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우리, 모두 영·혼·육의 녹을 제거하여 2026년에는 우리 삶에 생수가 펄펄 나오게 하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게 합시다. 녹을 제거하여 삶이 새 기계처럼 잘 돌아가게 합시다.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회복하고,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오직 예수’하던 때로 돌아갑시다. 녹을 제거하면, 기도하면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밭갈음이 때가 맞아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
필리핀 세부 집회

2026년 5월 6일(수)~12일(화)

:: 객원컬럼 ::

두 개의 바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한다. 바다를 향해하는 배, 우리는 그 배의 키를 잡고 각자 앞에 놓인 생의 바다를 향해한다. 돛 단 듯 잔잔한 바다를 지나기도 하지만, 때론 예측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한다. 그 위기, 몰아치는 태풍과 홍용하는 파도, 갑작스런 암초를 극복하지 못해 좌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향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 다른 바다, 곧 성령의 바다를 향해한다. 두 바다는 차원을 달리하여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물 흐르듯, 파도에 흐름을 맡기고 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한다. 때론 계곡을 만나고 웅덩이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물은 결국 바다로 향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시류에 맡기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 그 너른 바다로만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답이 맞을지 모르나 우리가 목적인 항구는 그 너른 바다의 한 지점이다. 따라서 인생의 파도에 내 몸을 그저 내맡기기만 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그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확률이 높아진다. 세상 풍조에, 시류에 그저 내맡기는 것이 당장은 쉽고 편할지는 몰라도, 내 영혼의 닻을 목적인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를 거슬러 쉽 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떠밀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정말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한다.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까지는 절대 저절로 도달할 수 없다. 쉬지 않고

좌표를 확인하고, 방향기를 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그냥 두어서 좋은 일은 없는 듯싶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쇠락해 버린다.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유지된다. 어디 건물 뿐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무너진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물론 때로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수반될 때, 가정도, 직장도, 단체도 아름답게 성장한다. 내 몸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가졌다 해도 꾸준히 몸을 관리하고 운동해주지 않으면 쉽게 노화되고 무너져 질병에 노출되고, 고통 받게 된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구성원이 힘써 제도를 완성해놓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 없이 방치해두면, 어느 누군가 그 제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기 십상이다. 역사를 통해 숭한 예를 보지 않던가. 그러나 성령의 바다는 앞질러서도, 거슬러서도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함에 내 영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생의 바다를 건지기 위해 목사님 말씀처럼 부단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지식을 쌓는 노력에 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내 영을 맡기는 자세가 두개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향해하는 참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나에게 ‘광야’는...

광야는 흔히 버려진 황무지나 사막과 같은 척박한 공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광야는 단순한 고통의 장소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히브리어 ‘미드바르’(מִדְבָּר)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דָּבָר)에서 유래한 말로, 광야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광야는 결핍과 고난이 있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야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안정된 환경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마음의 본질이 결핍과 고립 속에서는 숨김없이 나타난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이 곧 우리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감사로 그 시간을 통과한다. 결국 광야를 실패의 장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킬 것인지는 우리 선택과 반응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에서 애굽에서의 해방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현실 앞에서 쉽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눈앞의 결핍에 머물렀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지속되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광야를 고통의 장소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선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감사는 광야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원망으로 채워진 광야는 상처와 실패의 기억으로 남지만, 믿음과 감사로 채워진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의 자리로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이끄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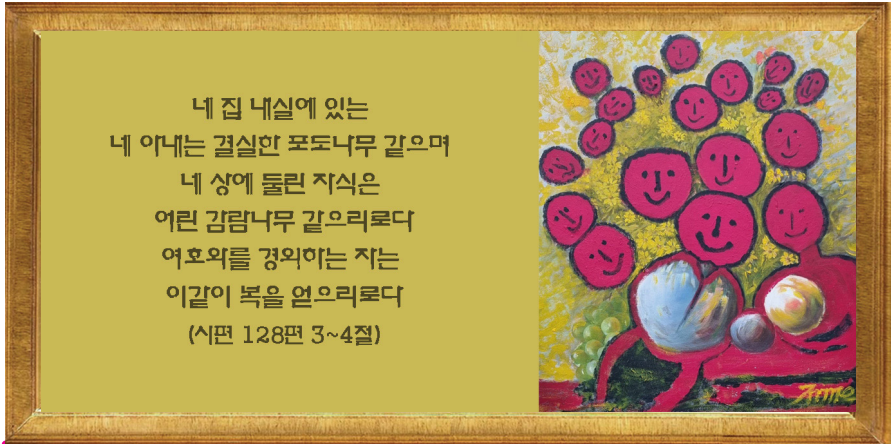
:: 오늘의 메시지 ::

효(孝)

40대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1)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자녀에게 늘 사주는 것이라 쉽게 대답한다.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2) 자녀의 사진은 가지고 있는가?
핸드폰을 여니 수도 없이 많다.
3)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한다.
다음에는 자녀 대신 부모를 넣고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사진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없다.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다. 1~4계명은 수직적 사랑, 5~10계명은 수평적 사랑이다. 그중 수평적 사랑의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축복의 근거이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복을 받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어 복을 받고, 썸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복을 받고, 롯은 시어미 나오미를 끝까지 섬겨서 복을 받았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죽여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신다(신21:18~21). 그러나 순종하여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신5:16, 엡6:1~3).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이 연중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명령임을 알고, 행함으로 약속하신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김상욱 목사



:: 낮은 울타리 ::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얼마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갔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중 미국인 친구를 따라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정말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지체가 제가 속해있는 부서의 지체와 정말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새신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예배를 위해 바쁘게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그 자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다가 설교 시간에는 열심히 조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 우리 부서와 참 닮아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와 사랑이 필요한 자가 함께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여 만드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

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함께 있고, 믿음이 장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하며, 낮아짐을 배우고 사랑하기 힘든 자도 하나님을 통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부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 아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교회의 모습이, 구성원들의 모습이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혼 한 명, 한 명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녀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를, 불러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더 잘 대접하고 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병든 자들이 모여 고침받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흠 없는 공동체를 꿈꾸기보다 모두가 어울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바라며 일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장수정

어머니의 팔순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80년 세월, 그중에서도 혼자된 서른한 살부터 가장 시리고도 뜨거웠던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 엄마.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꽃다운 서른한 살, 세상이 온통 막막하기만 했던 그 나이에 어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을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지우고 오직 1남 3녀라는 네 개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갑옷

을 입으셨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부터 별이 뜨는 밤까지,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술과 깨끗한 옷 한 벌을 위해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던 세월, 자식들이 아프면 어머니는 가슴을 쳐야 했고, 자식들이 흔들리면 어머니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통으로 그 비바람을 막아내셨습니다. 그 모진 고생 속에서도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4남매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식 사랑이었습니다. 인생 중년을 지나며 만난 하나님은 외롭고 고달팠던 엄마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이자 신랑이셨습니다. 그 신랑이 너무 좋아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어머니의 신앙은 50년 전쯤 엄마와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셨던 작은 할아버지의 기도의 열매였

습니다. 몇 년 전, 수술한 어깨를 이끌고 기도원에 가셨을 때, 총회장님께서 어머니를 대면하여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고 계시는구나.’ 꿈속에서 총회장님과 결혼하는 그 황홀한 장면은 예수 신랑과 함께 사는 어머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로이자 보상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0). 팔순이 되신 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이인 제가 엄마의 생신은 더 의미 있고 최고의 날을 선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생들과 마음을 모아 오늘날이라도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 평소 흥이 많은 엄마와 동생들, 사위, 며느리, 조카들까지 춤추고 노래하며 부둥켜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특별히 엄마의 아픈 손가락인 동생이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지난날 엄마의 상처는 눈물과 함께 씻겨졌습니다. 사회자인 조카의 재치 있는 멘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들의 노래가 어우러진 이 잔치가 어머니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총회장님의 교훈과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남은 세월을 기쁨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이 권사 직분 잘 감당하여 훗날 주님께 칭찬받기를, 그리고 120세까지 강건하게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정선 권사

:: 한국교회사 ::

한국의 베드로 김익두 목사

한국 교회사에는 유난히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불꽃같은 신앙으로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익두 목사님(1874~1950)은 극적인 회심, 강력한 부흥 운동, 그리고 순교로 점철된 삶을 통해 한국 개신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독특하고도 강력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초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74년 황해도 안악군의 유복한 유학자 가문에서 독자로 태어나 학문에 정진했으나, 16세에 과거에 낙방하고 이어진 장사에 손을 대었지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자 그는 좌절감과 허무감에 젖어 안악골의 악명 높은 강패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악 장터에서 한 서양 여선교사로부터 받은 전도지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코를 풀고 버릴 정도로 무시했던 전도지에 쓰인 이사야 40장 6~8절의 말씀,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구절은 그의 영혼을 깊이 찔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친구 전도를 통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스왈론 선교사로부터 받은 순한문 신약성경을 100독 하며 말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 중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너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신

유와 회개로 진동시키고 한반도를 성령의 물결로 휩쓸어라.” 하여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익두의 육과 영은 불덩어리 상태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쏟아지고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나며, 이때부터 김익두는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사죄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새사람이 된 김익두 목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0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신천읍교회에서 24년간 시무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운동사에서 김선주 목사님에 이어 부흥운동을 이끈 가장 강력한 부흥사로 손꼽힙니다. 3.1운동 직후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영적인 희망을 불어넣어야 했던 시대적 사명에 응답하여, 그는 전국을 누비며 무려 776회에 달하는 대규모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길가의 앓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의 이적을 연상하며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고, 확신이 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결국 일주일간 금식하고 다시 도전하여 앓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39년간 수십만 명의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수많은 치유 이적이 동반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약 1만 명

에 달하는 환자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부흥회를 통해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성봉, 주기철 목사님 등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신앙적 각성을 얻거나 목회 소명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는 철저한 죄의 고백과 통회 자복을 이끌어내는 영적 각성의 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바울로 불리는 김선주 목사님이 말씀으로 영적 각성을 주도했다면, 김익두 목사님은 이적과 치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한국의 베드로’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강력한 사역 뒤에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영적 호흡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치유 사역은 밤낮으로,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함을 역설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대해 성령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했으며, 이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신령한 양식’이라 부르며, 말씀과 기도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회자이자 부흥사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주의와 경건주의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한국교회에 깊

은 영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150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약 2만 8천 번의 설교를 통해 288만여 명의 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1만여 명의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감화로 20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어 한국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의 뜨거운 신앙은 현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대문교회와 승동교회에서도 시무하시며 활발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말, 민족의 아픔과 교회의 시련이 깊어지던 1938년, 그는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여 일제에 의해 목사직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어떤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반석 같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광복 후에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1946년 신천 서부교회에 부임하여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족에게 또 다른 비극이 닥쳤으니,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중, 예배당을 급습한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하시며 신천 서부교회에서 그의 위대한 생애를 순교로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순교는 한국 교회사에 깊은 울림을 주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그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김종춘 목사